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선출...34년만 첫 여성 의장

분회의서 무더기 기권·무효표 쏟아져... '정치력 부재' 비난도 부의장 서용규·채은지...국힘 김용임 의원 5표에 민주 독점 경종

광주시의회가 개원 34년 만에 최초의 여성 의장을 배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민주당 일색인 분회의에서 다수의 기권·무효표가 나오면서 스스로 '무리한 의정활동 개입에 따른 내부 반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 1차 경선에서 단 4표를 얻은 후보가 가까스로 2차 경선을 통과해 의장 후보가 된 과정도 뒷말이 무성하고 2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한 분회의에서 정작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기권·무효표가 쏟아져 '정치력 부재'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가 예상과 달리 선전하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에 대한 항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분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거를 했다.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후보에 단독 등록한 신수정(복구3) 의원이 선출됐다. 신 의원은 전체 의원 23표 중 16표(무효 4표·기권 3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무효나 기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장 서용규 1부의장 채은지 2부의장

신임 신 의장은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협치와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세련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삶에서, 시민들의 시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부의장에는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이 당선됐다. 서 의원은 16표(무효 3표·기권 2표)를 받으며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을 꺾었다. 광주시의회는 경유 부의장이 2명이어서 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를 뽑는 2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어진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이 15표(무효 2표·기권 1표)를 받으며 5표를 받은 김용임 의원을 제쳤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이 21명에 달해 일당 독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적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해 내세우는 등 의회를 거수기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의 5표 득표는 시의회 내 '민주당 독재' 폐해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이 얻은 5표는 자신과 무소속인 심창욱 의원이 투표했다 하더라도 최소 나머지 3표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오죽하면 해당(曹黨) 행위를 범하면서까지 상대당을 찍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함께 열린 상임위원회 선임도 원만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부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물리면서 의원들끼리 준비위원을 하는 촌극을 빚었고, 준비위원이 됐던 광주 북구를 지역의 시의원 3명 모두가 교민위로 지정되는 등 지역구 안배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국 하이테크비전 방문 중국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항저우 하이테크비전을 방문,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중소기업 혁신기술 인증비용 지원

2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품질성능 검사비 등 최대 500만원

광주시가 혁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혁신기술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기술 인증을 신규 획득했거나 갱신하는 기업이다. 광주시는 기술혁신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 등 전체 비용의 8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혁신기술 인증은 기술혁신형 13종과 법정 의무 조달가점형 10종이다. 기술혁신형 13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등으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다. 법정 의무 조달가

점형 10종은 한국산업표준(KS), 국가통합인증(KC),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인증분야 재활용품질인증(GR), 국가통합인증마크(K마크), 품질인증마크(Q마크), 의료기기품질인증평가(GMP) 등 4종을 추가했으며, 컨설팅비용 지원과 기업별로 최대 2개종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13곳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ep.or.kr>) 공고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혁신기술 인증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하이재킹'·'삼식이 삼촌'...전남, 시대극 촬영지로 급부상

옛 장흥교도소·별교터미널 등

전남 곳곳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1950-1970년대 시대극 촬영지로 각광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 더디고 재개발이 안 돼 옛 건물이나 거리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거주인구도 적어 장기간 촬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전남영상위원회에 따르면 '하이재킹', '삼식이 삼촌' 등 최근 방영된 시대극 드라마·영화가 전남도에서 촬영됐으며, 앞으로도 상당수 시대극 제작자들이 전남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21일에 개봉한 하정우, 여진구 주연의 영화 '하이재킹' 역시 전남에서 촬영됐다. '하이재킹'은 1971년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영화로 옛 장흥교도소, 별교터미널 등이 등장한다. 옛 장흥교도소는 드라마 '모범택시2', '설강화', '이재, 곧 죽습니다' 등 2020년부터 50편 이상의 영상을 촬영한 곳으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자에게 단연 1순위 촬영지로 손꼽힐 만큼 유명하다. '하이재킹'에서 옛 장흥교도소는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주인공의 아픈 기억 속 공간으로, 별교터미널은 공항으로 탈바꿈했다. OTT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된 송강호, 변요한 주연의 '삼식이 삼촌'도 전남도 로케이션 촬영 지원작이다.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의 이야기로, 50-60년대의 모습을 잘 반영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식이 삼촌'은 순천시의 옛 제일대 승주캠퍼스, 순천 드라마촬영장, 신안 태평염전, 해남 옥매광산 등 전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다. 옛 제일대 승주캠퍼스,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전남영화 '서울의 봄',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카지노' 등을 촬영한 곳으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각각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 예전부터 드라마, 영화 제작사로부터 각광받아 왔다. 전남영상위 관계자는 "순천시, 신안군, 해남군, 장흥군, 별교읍 등 전남 전역이 시대극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영상위는 전남 로케이션 지원 유치를 위해 '2024년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지원

추경서 3억5000만원 확보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으로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

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차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